

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

9주. 여성, 문학으로 삶을 가꾸다

2차시. 글로벌 시인으로 거듭나다

학습목표

1. 허난설헌의 삶을 살피고 조선시대 여성 삶을 이해한다.
2. 허난설헌의 시세계 특성을 이해한다.

🔍 허난설헌은 누구인가?

난설헌 허씨 (1563-1589).

본명은 허초희. 자는 경번(景樊). 호 난설헌.

아버지 허엽.

허봉, 허균과 남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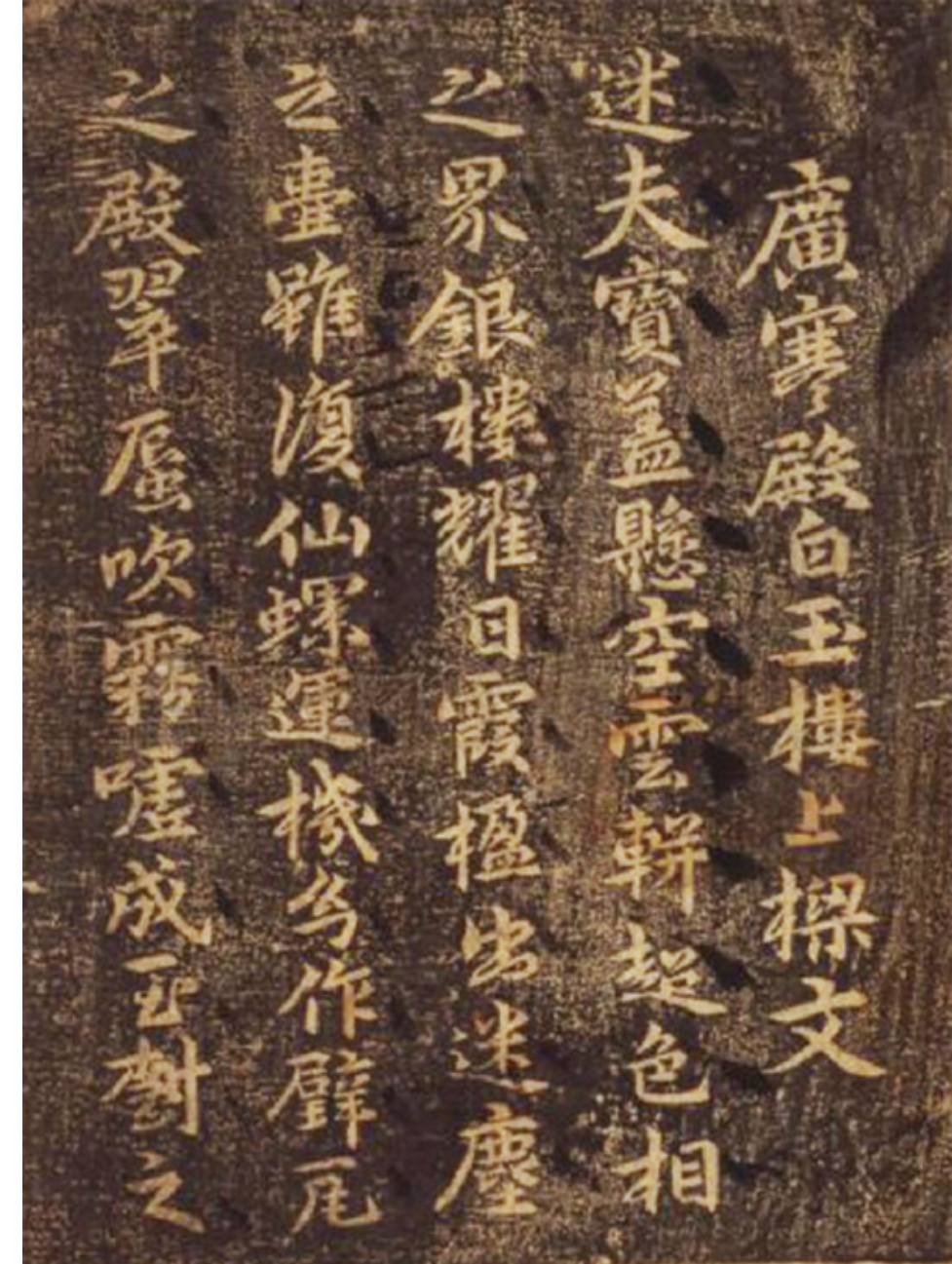
- 8살에 <광한전 백옥루 상량문> 지음.
- 이달에게 시를 배움.
- 15세 김성립과 결혼.
- 고독한 결혼 생활.
- 자식들을 잃음



허난설헌의 글씨와 그림 [양간비금도].
<출처: wikipedia>

<난설헌집> 간행

- 1589년 세상을 떠남.
- 동생 허균이 유작 210편 모아 문집 엮음.
- 유성룡에게 서문 받음.
- 1608년 공주에서 목판본 간행.
- <광한전백옥루상량문>-한석봉 글씨를 받아냄
- 허균이 문집을 주지번에게 줌.
- 주지번이 서문을 써 줌.
- 1606년 중국에서 시집 간행
- 반지공이 1608년 <공사>에 난설헌시 168수 수록



광한전 백옥루 상량문
<http://www.kyeonggi.com/news>

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ve8aDgxAzmk>
[팝여성사UCC]조선최초 여류시인 허난설헌.wmv

이미지를 클릭하여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
모바일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학습목차에서 영상을 시청 할 수 있습니다.

허난설헌 시

제비는 쌍쌍으로 날아 처마 끝을 날아가는데,
지는 꽃 어지러이 비단 옷 위에 떨어지네 .
신방을 바라보면서 가는 봄을 서글퍼하는 뜻은,
강남의 풀이 짙도록 돌아오지 않는 임 때문이오.

燕掠斜簷兩兩飛, 落花撩亂撲羅衣, 洞房極目傷春意, 草綠江南人未歸.



허난설헌 시

지난 해 사랑하는 딸 잃었고
올해 사랑하는 아들 잃었네
슬프고 또 슬픈 광릉 땅
두 무덤 마주 보고 있네
백양나무 으스스 스산한 바람소리
도깨비불 소나무 숲에서 번쩍이네
종이돈 태워 너희 영혼 불러내어
너희 무덤에서 술잔 붓는다.
아, 너희 남매의 혼령은
밤마다 정겹게 어울려 놀겠지
비록 배 속에 아이 있다 해도
어찌 장성하기를 바랄 수 있겠나
황대 노래 부질없이 부르니
피눈물 흐르고 목이 메이는구나



🔍 허난설헌 시

천년 묵은 못가에서 주 목왕을 이별하고

잠간 청조시켜 유랑을 찾아 보았네

밝아오는 하늘에선 풍악소리 울리며

시녀는 모두 흰 봉황새 타고 있네

千載瑤池別穆王, 暫教青鳥訪劉郎, 平明上界笙簫返, 侍女皆騎白鳳凰

<遊仙詞>



작자미상, <선녀승난도>, 남송, 비단에 색,
고궁박물관

허난설헌 시

성을 쌓고 또 성을 쌓으니,
성이 높아 도적을 막을 수는 있네
다만 두려운 것은 적이 많이 온다면,
성이 있어도 막지 못할 것이네.

築城復築城. 城高遮得賊. 但恐賊來多, 有城遮未得.

<축성원(築城怨)>

봉화가 황하에 길게 비치니,
군졸들이 중원 집을 떠나네.
창을 베고 흰 눈에서 자며,
말을 몰아서 사막에 다다르네..
북풍에 딱따기 소리 전해오고,
오랑캐 소식 호적에 들려오네.
해마다 잘 지키지만,
전쟁에 끌려 다니기 괴롭네.

烽火照長河. 天兵出漢家. 枕戈眠白雪, 驅馬到黃沙,
朔吹傳金析, 邊聲入塞茄. 年年長結束, 辛苦逐輕車.

<출새곡(出塞曲)>

허난설헌 시

밤 깊도록 쉬지 않고 길쌈하니,
철컹철컹 베틀 소리차갑기도 하네.
베틀에 감겨진 한 필의 옷감,
결국 누구의 옷이 되는가.

(夜久織未休, 戛戛鳴寒機. 機中一匹練, 終作阿誰衣.)

<貧女吟>

동쪽 집의 세도가 불길처럼 드세고
드높은 다락에선 노래 소리 울렸지.
북쪽의 이웃 가난해 입을 옷 없고,
주린 배를 안고서 초막 안에 있네.

(東家勢炎火, 高樓歌管起. 北隣貧無衣, 枵腹蓬門裏)

<感遇>

허난설헌 시

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
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었구나.
부용꽃 스물 일곱 송이가 붉게 떨어지니
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.
碧海浸瑤, 海靑鸞倚彩, 鸞芙蓉三九, 朶紅墮月霜寒

학습내용 돌아보기

허난설헌

조선 때 시인.

허봉, 허균과 남매지간.

허난설헌 시 세계

- 임에 대한 애정, 그리움을 진솔하게 표현
- 자식 잃은 모정을 그려냄
- 유선사-신선세계 지향. 지상 현실 결핍 대체
- 현실 비판적 시각.

1589년 세상을 떠남.

- 동생 허균이 유작 210편 모아 문집 엮음.
- 유성룡에게 서문 받음.
- 1608년 공주에서 목판본 간행.
- <광한전백옥루상량문>-한석봉 글씨를 받아냄
- 허균이 문집을 주지번에게 줌.
- 주지번이 서문을 써 줌.
- 1606년 중국에서 시집 간행
- 반지공이 1608년 <공사>에 난설헌시 168수 수록

Quiz로 정리하기

1 선인을 만약 다시 본다면
한 지팡이에 거칠 것이 없을 것인데
아득한 흰구름 저 속에 사는
이따금 개짖는 소리 들려오누나

2 밤 깊도록 쉬지 않고 길쌈하니,
철컹철컹 베틀 소리 차갑기도 하네.
베틀에 감겨진 한 필의 옷감,
결국 누구의 옷이 되는가.

3 누가 곤륜산 옥을 떼 내어
직녀의 빛을 만들어 주었나
견우와 헤어진 뒤로는
시름에 차 허공에 던져두었네

1. 왼쪽에 있는 시의 작가들 중 당시 신분이 달랐던 사람의 시는 어느 것인가?

2. 시 2의 작가에 대한 설명이다. 사실과 다른 것은?

- ① 유선사를 지어 선계 지향하는 시를 창작했다.
- ② 남동생이 시집을 엮어 유성룡에게 서문을 받기했다.
- ③ <유선사>는 한석봉이 글씨를 써 주었다.
- ④ 명나라 때 주지번이 중국에서 시집을 간행했다.

3. 왼쪽 시 가운데 현실에서 벗어난 탈속적 분위기를 가장 많이 보이는 시는 어느 것인가?